▌이베로아메리카 제10권 2호 [2008.12] : 239~267

다인종·다문화 사회에서의 언어접촉과 변이

- 유대 스페인어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이 재 학**
Lee, Jae-Hak

<Abstract>

El Cambio Lingüístico del Judeo-Español en la Sociedad Diglósica.

Después de que los Reyes Católicos expulsaron a los judíos de la Península Ibérica en 1492, una gran mayoría de ellos emigraron al Imperio turco por la invitación del Sultán Bayaceto II. El Sultán les garantizó la autonomía y los judíos pudieron establecer muchas comunidades autónomas en muchas ciudades como Adrianópolis, Constantinopla, Esmirna, Rodas y Salónica, etc.. La mayoría de los sefardíes nunca salían de la judería durante su vida sin tener ningún contacto tanto con la cultura como la lengua turcas. Así es como el judeo-español ha podido sobrevivir más de cuatrocientos años después de la expulsión. Esta situación se cambió después de que el movimiento nacionalista había aparecido en el Imperio y muchos sefardíes empezaron a emigrar a Tel Aviv o a Neuva York desde 1908.

* 이 논문은 2008년도 고려대학교 특별연구비에 의하여 수행 되었음(Supported by a Korea University Grant).

** 고려대학교 서어서문학과 교수
E-mail: andyjlee@korea.ac.kr

Muchos gramáticos como Zamora Vicente piensan que el judeo-español se caracteriza por su enorme arcaísmo y que es una lengua hablada durante la Edad Media en la Península Ibérica. Pues, el presente estudio analiza los estudios anteriores y propone que se ha renovado esta lengua a través de los siglos. Para concluir, el contacto con la lengua prestigiada en una sociedad diglósica es el factor más importante en la pérdida de la lengua.

[Key Words: Contacto Lingüístico/ Judeo-Español/
Mantenimiento y Pérdida de Lengua]
[: / /]

Ⅰ. 들어가는 말

반도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스페인은 다양한 이민족의 침입을 겪으며 역사적 발전을 하여 왔다. 기원전 1100년경에 발생한 켈트인(los celtas)들의 침입 이래 그리스인, 로마인, 게르만족 등의 침입을 받으며 이들과 인종적, 문화적으로 혼종을 거듭한 이베리아 반도의 거주민들은 서기 711년에 발생한 이슬람 세력의 침공 이후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라는 세계 3대 유일신 종교가 공존하는 인류 역사상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초유의 경험을 하게 된다.[1] 이슬람 침공 이후 1492년의 국토회복(la

1) "서로마 제국의 멸망을 전후하여 찬란한 라틴문명을 꽃 피웠던 이베리아 반도의 라틴인들은 5세기 초 게르만 족의 일파인 반달족과 수에보족(409년), 서고트족(429년)의 연이은 침략에 시달리게 된다. 마침내 이들은 서고트 족의 지배를 받게 되어 711년 모로인들의 침공 이전까지 게르만 문화와의 문화적 혼종을 경험하게 된다. 마호메트가 일으킨 이슬람교는 그가 자신의 고향인 메카에서의 박해를 피해

Reconquista)때까지의 80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중·북부의 기독교 왕국들과 남부의 이슬람 세력들은 성전이라는 대의명분 하에 서로 대립하면서도, 때로는 자신의 세력을 넓히기 위한 필요성으로 인해 상호간에 전략적 동맹을 맺으며 공존하여 왔다. 이 시기의 유대인들은 꼬르도바, 세비야, 똘레도 등의 주요 도시에 거주하며 기독교도들과 이슬람교도들을 잇는 가교역할을 수행하였다. 스페인 거주 유대인들 중 상당수는 히브리어 이외에도 아랍어 및 통속 라틴어에서 파생한 이베리아 반도 내 다양한 지역에서 사용되는 로망스어 방언들을 구사하였다. 일례로, 현왕(el Sabio)으로 알려진 알폰소 10세(1252-1284년) 때 번창하였던 똘레도의 번역학교에서 아랍어로 된 문헌들을 라틴어로 번역한 학자들 상당수가 이들 유대인이었다.

이베리아 반도 내 금융업, 상공업, 수공업, 의료업의 상당수를 장악하고 있던 유대인들은[2] 국토회복 이후 가톨릭이라는 종교적 이데올로기

메디나로 옮긴 서기 622년(헤지라- 이슬람 기원 원년) 이후 급속히 성장하여 아라비아 반도 전체가 이슬람화 하게 된다. 곧이어 이슬람교도들은 동로마제국과의 전쟁에서 승리, 7세기 중엽에 이르러서는 소아시아를 포함한 동방세계와 동부 지중해를 지배하게 된다. 북아프리카에까지 진출한 이슬람 세력은 결국 타리크(Tarik)의 지휘아래 711년 지브롤타(Gibraltar)해협을 건너 이베리아 반도에 침입, 서고트 왕국을 무너뜨리고 북서쪽의 고산지대를 제외한 이베리아 반도의 대부분을 정복한다. 이들은 720년 피레네 산맥을 넘어 프랑크 왕국으로의 침입을 시도하더니 마침내 732년 유럽으로의 본격적인 침공을 도모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의 유럽 공략 시도는 프랑크 메로빙거 왕조의 궁재 카를 마르텔(그의 사후 아들 피핀이 서기 751년에 카롤링 왕조를 연다)에 의해 저지 당하며 이후 이슬람 세력은 피레네 산맥 이남으로 제한된다. 이들은 기후가 혹독한 이베리아 반도 북쪽의 갈리시아(Galicia)와 아스투리아스(Asturias)지역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실수를 범한다. 이 덕택에 이들 지역에서 일어난 기독교 왕국들을 기점으로 하여 기독교도들은 점차적으로 남진을 거듭, 마침내 1492년 모로인들을 이베리아 반도에서 완전히 몰아내고 국토회복(la Reconquista)을 완수하게 된다" (이재학 2002, 45).

2) 추방 당시 "스페인에 있었던 의사나 외과의사는 전부 유대인(아랍인을 포함해서)이었다. 이 사실은 1530년대 카를로스 1세가 알칼라 대학교의 한 학생에게 카스티야 최초의 공인의사자격증과 함께 소귀족(hidalgo)의 작위를 하사하면서 그를 축하했

하에 스페인을 통합하려는 가톨릭 양왕(los Reyes Católicos)에 의하여 추방당하게 된다. 1492년 3월 31일에 발표된 칙령[3]에 의하여 개종하지 않은 까스띠야(Castilla)와 아라곤(Aragón)에 거주하는 모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살던 곳을 버리고 떠나야 하였다. 이들 중 일부는 포르투갈과 나바라(Navarra)로 이주하였으나, 이들 지역에서도 각각 1497년과 1512년에 추방당하였다. 이들을 포함하여 이베리아 반도에서 추방당한 유대인들은 북아프리카,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만 제국 등으로 이주하였다.

추방 당시 유대인들은 재산을 지니고 이베리아 반도를 떠날 수 없었지만, 그들 고유의 문화와 더불어 스페인어라는 무형의 유산도 함께 지닌 채 새로운 땅으로 떠났다. 따라서 '유대 스페인어(el judeo-español)'라고 불리는 이들이 사용한 스페인어는 15세기말에서 16세기 초 사이에 이

던 사례에서 잘 알 수 있다.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도 유대인이었고, 왕국의 주납세자도 유대인이었다. 그들은 은행가, 상인, 고리대금업자였으며, 한편으로는 스페인에 막 태동하고 있었던 자본가계급의 선봉장이었다" (푸엔테스 1997, 101).

3) 그라나다에서 칙령 발표를 결정할 당시 가톨릭 양왕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포기하고 스페인을 떠나는 대신 가톨릭으로 개종할 것이라고 믿었으나, 실제로는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전자를 선택하였다. 칙령은 연령에 관계없이 개종하지 않은 모든 유대인들이 1492년 7월말까지 까스띠야와 아라곤 왕국을 떠나지 않으면 어떠한 재판 절차도 없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Por ende, nos [...] hauiendo hauido sobrello muchadeliberacion acordamos de mandar salir todos los judios y judias de nuestros reynos y que jamas tornen ni buelvan a ellos ni a alguno dellos e sobrello mandamos dar esta nuestra carta por la qual mandamos a todos los judios y judias de qualquier edad que sean, que biven y moran en los dichos nuestros reynos y sennorios, asy los naturales dellos como los non naturales que en qualquier manera y por qualquier causa hayan venido y stan en ellos, que fasta el fin del mes de julio primero que viene deste presente anno salgan todos de los dichos nuestros reynos y sennorios, con sus fijos e fijas e criados e familiares judios, assi grandes como pequenyos de qualquier edad que sean, e non sean osados de tornar a ellos (...) so pena que si non lo fizieren e cumplieren asy (...) incurran en pena de muert y confiscacion de todos sus byenes (...) syn otro proceso, sentencia ni declaracion" (Lleal 2005, 1140).

베리아 반도에서 사용된 스페인어의 원형을 상당부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다.[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추방 당시 이들이 사용한 유대 스페인어가 그 당시 이베리아 반도에서 사용되던 스페인어[5]와 동일한 언어였는지의 여부를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16세기 이후 터키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영어 등과 같은 다양한 언어의 영향을 받은 유대 스페인어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다인종, 다문화 사회 내에서의 언어접촉으로 인한 언어의 보존과 상실에 관하여 고찰하도록 한다.

Ⅱ. 이베리아 반도 내 유대인 공동체와 로망스어

이베리아 반도 내 유대인의 역사는 로마제국 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로마의 오현제 중 한 명으로서 히스파니아 속주 출신이었던 트라야누스 황제의 조카였던 하드리아누스 황제(재위 117-138년) 때부터 이베

---

4) Zamora Vicente(1989:51)는 유대 스페인어의 가장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가 15세기말과 16세기 초의 이베리아 반도에서 사용된 스페인어의 모습을 간직하는 의고주의(arcaísmo)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그는 유대 스페인어가 그 당시 스페인어의 음성학적 특징을 큰 변화 없이 오늘날까지 보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El español que los emigrados llevaban era el de finales del siglo XV y principios del XVI. La secular separación ha provocado el mantenimiento de los rasgos fonéticos esenciales de ese español antiguo, que han permanecido con bastante claridad hasta nuestros días. De aquí se deduce el carácter más interesante del habla judeoespañola: su enorme arcaísmo. Al alejarse de la Península, los hablantes no participaron de los grandes transformaciones fonéticas que el español ha experimentado posteriormente"

5) 본문에서 1492년 유대인 추방 이전의 중세를 언급할 때 사용하는 '스페인어'란 명칭은 현대 스페인어와 구분되는 의미로써, 중세 때 이베리아 반도 내에서 사용되던 까스띠야어, 레온어, 아라곤어, 까딸란어, 갈리시아-포르투갈어 등의 다양한 로망스 방언을 지칭하는 용어임을 밝혀 둔다.

리아 반도에 정주하기 시작한 유대인들은 고등교육을 받은 지식인 계급이나 상공업자, 수공업자, 의사 등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로마제국 지배하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생활했던 이들은 서고트족이 이베리아 반도를 점령한 이후 종교적 이유로 많은 박해를 받게 된다. 따라서 이들은 자연스럽게 이슬람 세력의 이베리아 반도 침공을 환영하게 되었으며, 이슬람 지배 하에서 이들과 동일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써 번영을 구가하였다.

하지만 11세기 들어와 베르베르인과 아랍인들 간의 내분으로 인하여 10여개의 소왕국인 '타이파스(Taifas)'로 알-안달루스(Al-Andaluz)왕국이 분열되고 1085년에 까스띠야 왕국의 알폰소 6세에 의해 똘레도가 정복되자, 위기를 느낀 이베리아 반도의 이슬람 세력이 북아프리카를 통합한 알모라비데(Almoravide)족의 칼리프인 유수프(Yusuf)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부터 유대인 사회도 시련을 겪게 된다. 즉 이베리아 반도에 상륙하여 발렌시아를 제외한 알 안달루스(Al-Andaluz)지역을 재통일한 알모라비데족은 유대인들에게 관용을 보였던 이전과는 달리 이들에게 박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종교적 박해는 북아프리카에서 알모라비데족을 정복한 후 1146년에 스페인을 침공하여 세비야, 말라가 등을 정복한 알모아데(Almohade)족의 통치 하에서도 계속되었다. 따라서 11세기 이후 유대인들은 박해를 피하여 똘레도 등의 기독교 지배 하의 도시로 이주하였다[6] (강석영 1988; 엘리엇 2000, 2003; 푸엔테스 1997; Lazar 1997).

기독교 왕국의 도시에 정착한 유대인들에게는 종교적 관용이 베풀어졌으며, 이들은 기독교 왕국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7] Bernardete(1982)와 Bendiner(1983) 등의 학자들은 이베리아 반도

6) 13세기에 들어와 까스띠야의 페르난도 3세에 의해 꼬르도바(1236)및 세비야(1248년)가 정복되고, 아라곤의 하이메 1세에 의해 발렌시아(1238년)가 재정복 되자 유대인들은 이들 도시로도 대거 이주하였다.

7) "다른 서유럽 국가들이 중세에 자국 내의 유대인들을 추방했던 반면 스페인인들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관용을 베풀었는데, 그것은 한편으로 그들이 꼭 필요한 존재들

내 기독교 왕국의 왕들이 유대인들을 정치·종교적 박해로부터 보호해 주는 방패막이 역할을 하였으며, 이들이 유대인 거주구역[8] 안에서 독립적인 행정권한을 지닌 특권을 누리며 생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예로 들어 Harris(1994)는 이베리아 반도 내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이 다른 유럽지역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상호 우정을 나누며 생활하였다고 주장하였다.[9] 하지만 이들의 주장과는 달리 계층화 된 계급사회인 중세 때의 이베리아 반도 내 기독교 왕국들에서 이질적 집단간의 교류는 활성화 되지 않았으며, 유대인들은 사회적으로 많은 차별을 받았다. 실제로 이들은 기독교인들과 분리된 채 생활하여야 하였으며, 유대인임을 나타내는 복장과 표식을 하고 다녀야 하였다.[10] 따라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공동체인 '주데리아' 안에서 자치권을 누리고 생활하였다는 Harris(1994)[11] 등의 주장은 기독교 왕국 내에서 이

이었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스페인 땅에 남아 있는 관용적인 무어인 왕국의 존재가 그들에 대한 보편적 추방조치의 효과를 반감시킬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엘리엇 2000, 114).

8) 중세 때 이베리아 반도 내 유대인 거주구역은 '알자마스(aljamas)'또는 '주데리아(judería)'로 불렸으며, 전자는 이슬람 왕국 내에서, 후자는 기독교 왕국 내에서의 명칭이었다. 중세 스페인어에서 철자 j는 현대 스페인어에서와 같은 무성 연구개 마찰음(fricativa velar sorda)이 아닌 유성 치구개 마찰음(fricativa alveopalatal sonora)의 음가를 가지고 있었던바, 본고에서는 중세 까스띠야어의 발음에 의거하여 'judería'를 '주데리아'로 표기하도록 한다 (주 38번 참조).

9) "In the Peninsula Jews and Christians lived in an atmosphere of harmony and friendship unknown in the rest of Europe" (Harris 1994, 32).

10) Leal(2005, 1139)은 유대인들을 기독교인들로부터 분리하여 거주시켜야 한다는 중세 때 내려진 칙령을 예로 들며, 이베리아 반도 내 기독교 왕국들에서 반유대인 정서가 매우 강하였다고 주장하였다: "...Mandamos apartar a los dichos judios en todas las cibdades o villas e logares de los nuestros reynos y sennorios y dalles juderias e lugares apartados donde biviessen, esperando que con su apartamiento se remediara (...) el gran danno que a los christianos se ha seguido y sigue de la participacion, comisacion y comunicacion que han tenido y tienen con los judios."

11) "Generally, they lived in the big cities within the walls of their aljamas or judería's 'Jewish quarters' where they were able to control their own administration and

들이 정치적 특권을 누렸다는 사실을 반영한다기보다는, 이들이 다른 기독교인들과의 접촉이 제한된 채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반증인 것이다.

중세 때 이베리아 반도 내의 기독교 왕국들에 거주하는 유대인 중 자신들의 거주지역인 '주데리아'를 벗어나지 못한 채 평생을 보내는 경우도 많았으며, 자신들의 거주지역을 벗어나 기독교도 또는 이슬람교도와 접촉하는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교육받은 남자들에 국한되었다.[12] 이와 같은 사실을 고려할 때 이들이 사용하였던 언어가 Alarcos(1951), Harris(1994), Lleal(2005) 및 Zamora Vicente(1989), Wagner(1930)[13] 등이 주장하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사용하였던 통속라틴어 방언(또는 로망스어)과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왜냐하면 '주데리아' 내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의 경우 외부세계와 고립되어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들이 구사하는 로망스어는 상대적으로 유대 특유의 언어·문화적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데리아' 내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구사하는 로망스어는 그들의 거주지역 밖에서 기독교인들에 의해 구사되는 로망스어와 차이를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다.

---

communalaffairs"(Harris 1994, 32).

12) 기독교인들과 유대인을 분리시키는 법령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과 개종한 유대인간의 결혼은 암암리에 이루어졌으며, 부유한 유대인과 기독교 귀족간의 혼인에 의한 연대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가톨릭 양왕인 아라곤의 페르난도 왕도 유대인의 피를 물려받았을 것으로 추정 된다 (엘리엇 2000, 114-115).

13) Wagner(1930, 16)는 오스만 제국 내에서 사용되는 유대 스페인어가 중세 때 스페인 본국에서 사용된 스페인어와 동일한 결과, 이들 도시들을 방문한 여행자가 유대 스페인어를 듣게 되면 마치 중세 스페인의 도시에 와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El viajero español que llega a Adrianópoliso a Salónicay oye por todaspartes la conversación española de los numerosjudíos que allí habitan, puedecreerse transportado de repente al Zocodoverdel Toledo medievalo a la Alcaicería de la Granada morisca."

이들이 사용하였던 로망스어의 언어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언어들을 사용하며 생활하였는지를 고찰할 필요가 있으며, 다음 장에서는 이를 살펴보도록 한다.

Ⅲ. 이베리아 반도 내 유대인들의 언어와 유대 스페인어

셈어족에 속하는 히브리어는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기 이전부터 사어가 되어 일상어(la lenguavernácula)로써의 기능을 상실하였으며, 로마지배 시절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언어는 아람어였다.[14] 그러나 유대인 과격파인 열심당이 서기 66년에 일으킨 반란이 로마제국에 의해 진압된 후 이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떠나 세계를 떠도는 디아스포라를 겪게 되었다. 디아스포라 이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들이 사용하던 아람어 역시 히브리어와 마찬가지로 일상어로써의 기능을 상실하고 성직자나 교육 받은 지식인들만이 사용하는 문어체 언어로써의 기능만을 갖게 된다. 이에 이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언어를 일상어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이베리아 반도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의 경우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즉 이슬람 세력의 침공 이후 이들 지배하의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아랍어를 일상어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후 기독교 왕국들이 똘레도, 꼬르도바, 세비야 등을 정복하며 남진하면서 새로이 이들 지배 하에 편입된 유대인들은 아랍어 대신에 로망스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종교

14) 구약 성경에 사용된 언어인 고전 히브리어는 2000여년 가까이 일상어로써의 기능을 상실한 채 종교제의나 전통민속의식과 관련된 언어로써만 기능을 발휘하였다. 히브리어는 20세기에 들어와 이스라엘 건국 이후 공용어로써 일상생활에서 다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및 민속과 관련된 언어로써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사용하였으며, 법률 및 제도 등과 관련된 언어로써 라틴어가 지식층 사이에서 사용되었다. 또한 이들이 로망스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고 해서 자신들이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던 아랍어의 사용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즉 이들은 자신들끼리만의 비밀스러운 대화수단으로써 아랍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였다.[15] 반면, 일반 기독교인들과의 대화 및 가정 내에서 사용하는 일상어로써는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로망스어가 사용되었다.[16] 따라서 중세 때 기독교 왕국 내에서 문어체의 언어로 라틴어가, 구어체의 언어로 로망스어가 사용된 것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 역시 자신들의 거주지역에 따라 문어체의 언어로는 히브리어(아람어), 라틴어 또는 아랍어를, 구어체의 언어로는 로망스어 또는 구어체 아랍어를 사용하였다.[17] 이와 같이 기독교, 이슬람, 유대라는 세 개의 문화가 교차하는 접점에서 자신들

15) Harris(1994:55)는 유대인들이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들만이 이해하는 비밀언어로써 히브리어와 아랍어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because of possible surrounding danger, the Jews had a defense mechanism in the form of a secret language to allow them to communicate secretly with co-religionists. In this instance, they would often use Hebrew and Arabic expressions, some of which have continued to be used as part of a secret language throughout the centuries in exile".

16) Schwarzwald(1992:29)는 '신성한 언어'로 여겨진 히브리어나 식자층이 사용하는 라틴어와는 달리 유대인들이 로망스어를 '하급'의 언어로 여겼으며, 엄격한 표준 규범에 의하여 이 언어를 습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Ibero-Romance was considered low level (where the prestigious Latin was the normative language of the educated, and Hebrew the 'sacred language'), the speakers of this vernacular saw no need to adhere to strict normative standars."

17) Minervini(2008:26-29)는 이베리아 반도 내 기독교 왕국들에 거주하는 유대인 상류층들이 13세기까지 히브리어와 아랍어를 사용한 반면 유대인 하류층들은 로망스어 및 지역에 따라 구어체 아랍어를 일부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의하면 유대인 상류층들이 로망스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4세기부터이다. 따라서 14세기부터 추방 시까지의 두 세기 동안 유대인 상류층들은 히브리어, 로망스어 및 아랍어를 사용하였고 하류층에서는 로망스어 및 구어체 아랍어가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의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이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던 다른 문명권의 언어를 구사한 것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필수불가결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이처럼 한 개 이상의 언어가 상호접촉 하는 다중언어사회 속에서 생활하던 이들이 구사하는 로망스어가 히브리어나 아랍어 등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하여 유대인 추방 이전에 유대 스페인어로 작성된 텍스트들에서 히브리어의 영향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432년에 바야돌리드(Valladolid)의 유대인 공의회가 주데리아 내 유대인 가정에서 존경할 만한 교사를 선정하여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의무화하기 위해 공포한 법령에서 히브리어와 스페인어 간의 부호전환(cambiode códigos)현상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Otro si ordenamos que cual quiere qahal YC'W de quinze ba'ale batim sean me Huyavim de tener entrese melamed tinoqut hagun que beze a sus fijos pasuq"[18)19)]. 위 예문을 통하여 히브리어 어휘 qahal(유대인 공동체), YC'W(인명 또는 지명 뒤에 붙은 축복을 뜻하는 약성어[acronym]),ba'ale batim(가정), melamed tinoqot(어린이를 가르치는 교사), hagun('존경'의 의미를 내포한 형용사), pasuq(성경말씀) 등이 유대 스페인어 텍스트 내에 혼재되어 있

18) 본문에서 인용하는 바야돌리드 텍스트 및 이에 대한 분석은 Schwarzwald(1993, 30-31)가 인용한 것을 재인용하였음을 밝혀 둔다.

19) 유대 스페인어는 일반적으로 라틴어 알파벳이 아닌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기록되어 졌다. 이들이 사용한 히브리어 알파벳은 랍비들에 의해서 기록되어 진다는 의미에서 'rashiscript'또는 'caracteresrabínicos'로 불린다. 추방 후 발칸반도로 이주한 유대인들은 이것보다 표기가 쉬운 'el solitero'라 불리는 알파벳 체계를 사용하여 회계장부나 상업문서를 작성하였다 (Besso1963,181-182) 서적이나 신문은 일반적으로 'caracteresrabínicos'에 의해 기록되어 졌으며, 루마니아에서 1886년에 발간된 Luzerode la Pasensia가 라틴어 알파벳을 사용한 최초의 유대 스페인어 신문으로 기록 된다 (Harris 1994, 56).

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반드시...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지닌 히브리어 동사 meHuyavim이 스페인어 ser 동사의 접속법 현재 3인칭 복수 변화형인 'sean'과 함께 사용되어 '...을 [미래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deberán tenerentresí')'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더욱(más)'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od'에서 차용된 'otro'는 스페인어의 원래 의미인 '다른'이 아닌 '더욱이' 또는 '또한'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히브리어는 어휘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형태, 통사론적인 측면에서 유대 스페인어에 영향을 미쳤다.[20] 예를 들어 히브리어에서 차용된 동사, 형용사 또는 과거분사 등이 스페인어 어미변화규칙에 따라 인칭과 수에 따른 변화를 하거나, 히브리어 어미가 스페인어 어휘에 적용되는 경우를 흔하게 발견할 수 있다: 'darsar:darso,darsas,darsa' (설교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daras'에서 차용); 'enhermado' ('파문'을 뜻하는 히브리어 'herem'에서 파생된 과거분사); 'desmazalado' (행운'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mazal'에서 파생된 '불행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 'ladronim' (히브리어 복수어미 '-im'이 스페인어 복수어미 '-s' 대신 사용되어 '도둑들'을 의미).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유대인들은 오랜 기간 아랍인들의 지배를 받았으며 기독교 왕국의 지배 하에 놓이게 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아랍어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이들이 사용하는 유대 스페인어도 아랍어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으며 자연스럽게 아랍어 어휘들이 차용되었다: adafina(유대교 안식일 음식), alforria(자유), alḥad(일요일), alihara(유대인

20) 1492년 이전에 이베리아 반도에 존재하던 유대 스페인어로 작성된 텍스트들은 유대인 추방 후 대부분 폐기 또는 소실되었으며 극히 일부만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추방 이전에 사용되던 유대 스페인어의 언어학적 특징은 이들 소수의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만이 추정가능하다. 본문에서 언급하는 유대 스페인어에 대한 히브리어 및 아랍어의 영향에 대한 분석은 Harris(1994),Lleal(2005), Minervini(2008), Penny(2000), Schwarzwald(1993), Wagner(1930), Zamora Vicente (1989) 등의 연구에 바탕을 두었음을 밝혀 둔다.

복장), ḥazino(아픈).[21] 또한 유대 스페인어에 차용된 아랍어 어휘는 지역별로 변형되어 다양한 형태를 띠었다. 예를 들어 까스띠야 지역에서 'alihara'로 발음된 어휘는 아라곤이나 레온 지역 등에서는 'adiara'나 'aldifara'등으로 발음되었으며, 'adafina'는 지역에 따라 'adefina'나 'defina' 등의 다양한 형태로 발음되었다.

이처럼 추방 이전에 사용되던 유대 스페인어는 어휘, 형태, 통사론적인 측면에서 히브리어와 아랍어의 영향을 받은 결과 그 당시 이베리아 반도 내에서 사용되던 로망스어 방언들과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또한 통일된 '표준규범'이 존재하지 않던 언어적 특성상 유대 스페인어는 까스띠야어, 아라곤어, 레온어, 까딸란어 등과 같은 다양한 로망스 방언들과 접촉하며 지역별로 다양한 언어적 변이형(variantes lingüísticas)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추방 이전에 구사되던 유대 스페인어가 주데리아 외부 세계의 스페인어와 동일한 언어였을 것이라고 추정한 Alarcos Llorach (1951), Harris(1994), Lleal(2005), Minervini(2008) 등의 주장과는 달리 이들이 구사한 일상어는 결코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던 스페인어와 동일할 수 없었으며, 히브리어와 아랍어와의 언어접촉 결과 이들 언어와의 부호전환을 반영하는 언어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22]

이베리아 반도 거주 유대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던 유대 스페인어의 모습은 텍스트 분석을 통하여 추정할 수밖에 없으며, 추방 전 발간된 현존하는 유대 스페인어 텍스트 또한 성경이나 종교의식과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Alvar(2000), Besso(1968), Sephiha(1971; 1973), Wagner(1930)등과 같은 학자들은 추방 전 유대인들이 사용한 언어는 유

21) 유대 스페인어에는 중세 스페인어에는 존재하지 않던 아랍어 기식음 [ḥ] 및 연구개 마찰음 [x]가 아랍어의 영향으로 유입되었다.

22) "no podemos encontrar rasgos diferenciales que contraste de manera significativa con los de textos escritos en ámbito cristiano"(Minervini 2008, 31).

대 스페인어가 아닌 문어체 언어인 '라디노(ladino)'라고 주장하였다.[23]

즉, 성경을 번역하기 위하여 사용된 문어체 언어가 구어체 유대 스페인어의 모태이며, 구어체 유대 스페인어는 추방 이후 사용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Alvar(2000)[24]나 Wagner(1930)[25] 등은 라디노는 결코 구어체 언어가 아니었으며 아람어나 히브리어로 적혀진 성경이나 기도문을 스페인어로 옮기기 위한 언어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추방 전 존재하던 언어는 유대 스페인어가 아닌 라디노 또는 유대 스페인어 차용어(el judeoespañol calco)이며, 유대 스페인어는 15세기까지 이베리아 반도에서 일상어(la lengua vernácula)로써의 기능을 가지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히브리어나 아람어는 디아스포라 이후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상어로써의 기능을 상실하였으며, 이베리아 반도의 경우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26] 따라서 이들의 일상어는 히브리어나 아람어가 아닌 아랍어나 각 지역에서 사용되는 로망스어 방언일 수밖에 없었다. 이는 유대 스페인어가 이들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문어체 언어인 라디노에서 파생되어 추방 이후부터

---

23) '라디노(ladino)'는 라틴어를 의미하는 스페인어 단어 'latín'에서 파생되었다 (latín > ladino).

24) "el ladino no ha sido nunca una lengua hablada, sino la traducción <verbo a verbo> del hebreo o el arameo al español de textos bíblicos o de oraciones rituales" (Alvar 2000, 31).

25) 라디노가 종교적 서적에 사용되는 언어였다고 정의내린 Wagner(1930,20)는 'enladinar'라는 단어의 뜻이 히브리어 텍스트를 스페인어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ladino es la lengua española en oposición al hebreo, y, sobre todo, el español de los libros religiosos; enladinar quiere decir traducir textos hebraicos al español."

26) 다른 지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베리아 반도에서도 히브리어는 일상어가 아닌 유대인 예배당(sinagoga)이나 교육 받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문어체 언어로써의 기능만을 발휘하였다: "Hebrew and Aramaic did not survive as vernacular language, although Hebrew was used in the synagogue and was written by some educated Jews" (Penny 2000, 175).

일상어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기독교 왕국의 지배 하에 들어가게 된 12세기 이후부터 이들의 일상어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한다. 결국 이베리아 반도 각 지역의 로망스 방언들을 이들이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아랍어와 히브리어와의 언어접촉이 발생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기독교인들이 구사하는 로망스어와는 구분되는 유대 스페인어만의 언어학적 특징들을 형성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27]

Ⅳ. 오스만 제국 내에서의 유대 스페인어

이베리아 반도에서 추방되어 북아프리카나 이탈리아 등으로 이주한 유대인들 중 상당수는 오스만 제국의 술탄인 바야세토 2세(BayacetoII)의 초청을 받고 이곳으로 재이주 하였다.[28] 오스만 제국에 의한 동로마 제국 멸망 후 황폐화 되어 있던 콘스탄티노플 주변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시킬 목적으로 유대인들을 대거 유입시킨 바야세토 2세는 이들을 제국 전역의 각 지역에 분산하여 수용하였다. 보스니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북부 그리스, 소아시아, 이집트의 각 도시 및 콘스탄티노플과 도나우

27) Schwarzwald(199[illegible]) 이베리아 반도 내에서 사용되던 유대 스페인어가 지역별로 달랐으며 그들만의 고유한 일상어였다는 의미에서 'vernacularethnolect'이라고 명명하였다.

28) 북부 아프리카로 이주한 유대인들은 기아와 질병으로 상당수가 숨지거나 노예로 팔렸으며 생존자의 상당수는 오스만 제국으로 재이주 하였다. 이탈리아의 로마, 나폴리, 베네치아, 페라라(Ferrara)등의 도시로 이주한 유대인들은 종교적 자유를 구가하며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생활할 수 있었다. 이들은 페라라에서 성경을 유대 스페인어로 번역하는 등 이주 초기에는 유대 스페인어를 보존하였으나 얼마안가 이를 상실하게 된다. 네덜란드나 영국 등으로 이주한 유대인들 역시 이주 후 유대 스페인어를 상실하고 현지어에 동화하였다 (Lleal 2005; Wagner 1930; ZamoraVicente1989).따라서 본고에서는 유대 스페인어를 오랜 기간 동안 보존한 오스만 제국만을 다루도록 한다.

강을 잇는 거점 도시인 아드리아노폴리스(오늘날의 에디르네) 등으로 이주한 이들은 종교적 자유 및 거주지역 내에서의 완벽한 자치권을 보장받았다 (Lleal 2005; Wagner 1930; Zamora Vicente 1989).

이탈리아, 영국, 네덜란드 등의 지역으로 이주한 유대인들과는 달리 오스만 제국으로 이주한 유대인들이 유대 스페인어를 보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이 유대인 거주구역 안에서 외부세계와 단절된 채 완벽한 자치를 누리며 생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오스만 제국에 거주하는 유대인들 중 평생 동안 한번도 주데리아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29] 이처럼 이들은 술탄의 보호 아래 자치를 누리며 그들만의 세계를 구축하였으며 주데리아 내에서는 터키어가 아닌 유대 스페인어와 히브리어가 사용되었다. 이들이 오스만 제국 내에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터키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었던 이유는 다민족으로 구성된 방대한 제국의 영토 내에서 다양한 언어가 사용되었고, 이슬람 지배층이 피지배 민족에게 터키어의 사용을 강요하지 않고 민족 고유의 언어사용을 허용하였기 때문이다. 터키 민족주의 운동이 발생하기 이전의 오스만 제국은 민족이 아닌 이슬람이라는 종교적 이상에 기반한 종교 공동체의 성격을 띠었기 때문에 종교적 신념구현만을 추구할 뿐 언어적 통일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30] (Besso 1968; 1971). 따라서 추방 이전의 유대인들이 기독교 및 아랍 문명권과의 교류를 통하여 주류사회의 언어인 스페인어와 아랍어와의 언어접촉을 지속적으로 겪었던 것에 반하여, 오스만 제국 내의 유대인들은 특수한 사회·종교적 상황 속에서 다른 언어와의 접촉을 피한 채 자신들의 언어를 400년 이상 보존할 수 있었다.[31]

---

29) "En las juderías nacían, vivían y morían, a veces sin salir de ellas ni conocer el mundo exterior" (Besso 1970, 251).

30) "El gobierno otomano estaba fundado sobre la idea del estado religioso, que no consideraba la tierra y el lenguaje como fuerzas de unión. Admitía sólo la idea religiosa como base." (Besso 1968, 191).

1492년에 발생한 대규모 유대인 추방 이후에도 스페인 내에서는 개종한 유대인에 대한 정치·종교적인 박해가 지속되었다. 스페인 내에 잔류한 개종한 유대인들 중 많은 수가 16세기와 17세기 초까지 오스만 제국으로 유입되었다. 이들의 출신 지역은 어느 특정 지역이 아닌 아라곤, 레온, 안달루시아 등 스페인 전역에 걸쳐 있었다. 따라서 이들의 유입으로 인하여 오스만 제국 내에서 사용되는 유대 스페인어는 스페인 본국으로부터 고립된 채 화석화 되지 않을 수 있었다. 즉, 1492년 이후 이들 지역에서 발생한 스페인어의 언어학적 특징들이 유대 스페인어에 반영될 수 있었던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16세기 세비야를 중심으로 한 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쎄쎄오(seseo)및 예이스모(yeísmo) 현상이 유대 스페인어에도 영향을 끼친 사실이다. 결국 추방 전과 마찬가지로 추방 후의 유대 스페인어 역시 아라곤어, 갈리시아어, 까딸란어 등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었다. 따라서 Minervini(2008[32]) 등이 주장하는 것처럼 추방 이후 까스띠야어가 유대 스페인어의 규범언어(lenguaestándar)으로 자리잡은 것은 결코 아니었다. 즉, 오스만 제국으로 이주한 이베리아 반도 출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출신지역별로 공동체를 구성하였으며, 이들의 거주지역별로 다양한 유대 스페인어 방언들이 존재하였다. 예를 들어 까스띠야 출신의 유대인들은 주로 콘스탄티노플, 아드리아노폴리스, 로도스 섬 등에 정착한 반면, 아라곤, 아스투리아스, 갈리시아, 까딸루냐 등에서 이주한 유대인들은 주로 살로니카(Salónica),마케도니아, 보스니아, 세르비아, 루마니아 등의 발칸 반도에 정착하였다. 따라서 까스띠야어의

31) Benardete(1982)는 20세기 초기까지 오스만 제국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터키어를 구사할 줄 몰랐다고 주장하였다.

32) "La coineización del castellano procede de su difusión como lengua intercomunitaria, mientras que las otras variedades iberorrománicas quedan marginadas al ámbito familiar, antes de desaparecer del repertorio lingüístico de la comunidad"(Minervini 2008, 36).

영향을 받은 콘스탄니노플과 아드리아노폴리스 등지에서 사용되는 유대 스페인어와는 달리, 발칸 반도에서 사용되는 유대 스페인어는 아라곤어, 레온어, 갈리시아어, 까딸란어 등의 영향을 받았다. 그 결과 이들 지역에서 사용되는 유대 스페인어의 경우 다른 지역의 유대 스페인어와는 다르게 어미 모음 -e, -o, -a가 폐쇄되어 각각 -i, -u, -e로 발음되었으며, 어두자음 f-를 비교적 잘 보존하였다. 또한 북부 스페인 지역에서 사용되는 어휘들이 대거 이들 지역의 유대 스페인어에 유입되었다.[33]

이처럼 오스만 제국 내 유대인 공동체에서 아라곤어, 갈리시아어, 레온어, 까딸란어 등이 까스띠야어의 영향으로 인하여 소멸된 것은 아니었으며, 어느 특정 지역의 스페인어가 유대 스페인어의 통일된 표준규범으로 자리 잡지도 못하였다. 또한 Wagner(1930)[34], Zamora Vicente(1989)[35] 등이 주장하는 것처럼 15세기말과 16세기 초에 이베리아 반도 내에서 사용되었던 스페인어의 모습을 반영하는 의고주의를 유대 스페인어의 대표적인 언어학적 특징으로 규정짓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왜냐하면 17세기 초까지 스페인에서 발생한 언어학적 변화들이 유대 스페인어에 영향을 끼쳤을 뿐만이 아니라, 추방 후 스페인 본국에서 사용되는 스페인어

33) 살로니카와 보스니아에서는 아스투리아스어 'aviespa'및 갈리시아어 '(a)vespa'에서 파생된 'bezpa(말벌)'가 사용된 반면, 콘스탄티노플에서는 까스띠야어 'avispa'에서 파생된 'bizba'가 사용되었다. 또한 까스띠야어 보다 라틴어 자음군을 비교적 잘 보존하는 스페인 북부 지역 방언의 특성상, -mb- 등과 같은 자음군이 발칸 반도에서 사용되는 유대 스페인어에서는 보존되었다: 예) palombo,lombo(레온어, 갈리시아어, 아스투리아스어) vs. palomo,lomo(까스띠야어). 까딸란어도 발칸 반도에서 사용되는 유대 스페인어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결과, 이 지역의 유대 스페인어에서는 '매우 필요하다(es necesario)'라는 의미의 'kale(ke)' 등이 사용되었다: 예) 'kale intensifikar los esforsos' (es necesario intensificar los esfuerzos). 또한 까딸란어의 영향을 받아 모음 앞의 전치사는 'a'가 아닌 'an'이 사용되었다: 예) an el (현대 스페인어 a él). (Harris 1994, 101-102; Wagner 1930, 21-24).

34) 각주 13)번 참조.

35) 각주 4)번 참조.

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유대 스페인어만의 언어학적 혁신(innovaciones lingüísticas)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이 사용하는 유대 스페인어가 추방 당시의 스페인 본국에서 사용되던 스페인어와 동일한 언어라는 주장은 추방 후 유대 스페인어에서 발생한 언어학적 혁신들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다.[36] 물론 유대 스페인어가 양순음 /b/와 순치음/v/를 구분하는 등 중세 스페인어의 모습을 일부 간직하고 있기는 하나 중세 스페인어와 구분되는 많은 혁신적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37] 유대 스페인어에서는 치경 진동음 [r]과 [ɾ]의 중성화(neutralización)가 발생하여 /ɾ/이 변별자질을 가지는 음소로써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또한 철자가 'hwe-'일 경우 어두음 /g-/가 첨가되었으며, 어두음이 변이음(alófono) [vwe], [bwe] 및 [nwe]로 시작하는 경우 각각 어두음의 연구개음화 및 양순음화가 발생하였다: huevo > güevo, hueso > güeso, vuestro > güestro, bueno > güeno, nueve > mueve, nuez > muez. 스페인어 음소 /rd/는 유대 스페인어에서 음운환치(metátesis)가 일어났으며, 음절의 마지막에 위치한 /s/는 연구개음 /k/ 앞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나 치구개 마찰음으로 바뀌었다: tarde > tadre, pérdida > piédrida, mosca > moška, buscar > buškar. 접어 se는 복수의 의미를 내포할 경우 형태소 /n/이 추가되었으며, 복수 1, 2인칭 목적 대명사인 nos와 vos는 또 다른 목적 대명사 앞에 위치할 경우 음소 /s/가 상실되었다: al verse > en biéndosen, nos lo da > no lo da. 3인칭 소유 형용사 su의 경우 수식하는 명사의 수에 일치하는 대신에 소유자의 수에 일치하였으며, 명사 성의 경우 남성형과 여성형이 뒤바뀌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sus kaza ('그들의 집'), la

---

36) "Su lenguaen nada se diferenciabade la que se utilizabaen la Península" (Lleal 2005, 1141).

37) 본문에서 언급하는 예들은 Fontanella de Weinberg (1976), Penny (2000), Schmid (2008), Schwarzwald (1993) 등을 참조하였음을 밝혀 둔다.

dolor, la amor. 또한 유대 스페인어의 의고주의적 특징을 언급할 때 예로 드는 중세 까스띠야어의 여섯 개 치찰음(sibilantes)역시 유대 스페인어에서 그대로 보존된 것은 아니었다. 즉, 중세 까스띠야어의 혀끝 치경 마찰음 [ʂ]와 [ʐ]가 유대 스페인에서 전설 치경 파찰음 [ŝ] 및 [ẑ]와 중성화되어 사라지게 된 결과, 네 개의 치찰음 [ŝ], [ẑ], [š], [ž]만 존재하게 되었다[38]. 또한 스페인 이외의 지역에서 오스만 제국으로 이주한 유대인들과의 접촉으로 인하여 이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 어휘들이 새롭게 유대 스페인어에 편입되었다: adjidear(동정하다), ganavear(훔치다), mazaliko(복권), xaraganut(게으름), xoxma(지혜).

17세기 중엽 이후 유럽에 패권을 빼앗긴 채 점차 쇠약해져가는 오스만 제국 내에서 유대 공동체는 더 이상 경제적 풍요를 누릴 수 없게 되었다. 즉 오스만 제국이 해상 패권을 서유럽에 잠식당함과 더불어 상공업에 종사하며 경제적 이득을 누리던 유대 공동체도 함께 쇠락의 길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오스만 제국으로의 이주 초기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제국 내에서 가장 높은 교육을 받은 고급 두뇌 집단에 속하였다. 그러나 제국 내 유대 공동체가 빈곤 상태에 빠지게 되면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교육기회를 박탈당한 채 문맹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18세기까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정체 상태에 놓여 있던 유대 공동체가 다시 경제적으로 활기를 띠기 시작한 것은 1808년에 즉위한 마무드 2세가 제국의 서구화와 중앙집권화를 위한 탄지마트(Tanzimat)개혁 정책을 실시하면서부터이다. 개혁정책으로 인하여 오스만 제국은 일시적이나마 근대국가로의 기초를 다지며 재기할 수 있었으며, 유대 공동체 또한 유

38) 무성 혀끝 치경 마찰음 [ʂ], 유성 혀끝 치경 마찰음 [ʐ], 무성 전설 치경 파찰음 [ŝ], 유성 전설 치경 파찰음 [ẑ], 무성 전설 치구개 마찰음 [š], 유성 전설 치구개 마찰음 [ž]가 중세 스페인어에 존재하였던 여섯 개의 치찰음이었으며, 상기 치찰음들은 각각 철자 ss, s, ç, z, x, j로 표기되었다 (이재학 2002, 202-203).

대인 은행가 로스차일즈(Rothschilds)등의 도움으로 활기를 띨 수 있었다. 이 시기 프랑스 유대 지식인들은 로스차일즈의 도움으로 빈사 상태에 빠져 있던 제국 내 유대인들을 교육 시킬 목적으로 '알리앙스 이스라엘리트 우니베르셀르(Alliance Israélite Universelle)'를 설립하였다.[39] 또한 제국을 서구화 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단테 알리기에리(Dante Alighieri)'라는 이탈리아 학교들이 제국 곳곳에 세워졌다. 그 결과 프랑스어와 이탈리아어의 많은 어휘들이 유대 스페인어에 새롭게 유입되었다: 프랑스어) avenir(미래), buto(그러나), esitar(주저하다), madam(마담), repetar(되풀이하다), dezirar(원하다), suetar(인사하다); 이탈리아어) blu(푸른색), dirito(오른쪽), fatcha(얼굴), malato(아픈), sigurita(보험증권), socheta(사회), steso(같은) (Besso 1963; Harris 1994; Lleal 2005; Mancheva 2008; Schwarzwald 1993).

일시적으로 회생하는 것처럼 보였던 오스만 제국은 개혁정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유럽으로부터의 차관으로 충당하면서 유럽자본이 제국을 잠식한 결과, 유럽의 반식민지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유대인들 역시 유럽자본에 종속되며 사회의 하층계급으로 전락하였다. 오스만 제국은 비록 19세기 중반에 발생한 크림 전쟁에서는 승리하였지만 1878년에 발발한 러시아와의 또 다른 전쟁에서는 패배하게 되면서 돌이킬 수 없는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19세기말부터 활발하게 전개된 터키 민족주의 운동의 결과 1908년에 압둘 하미드 2세가 청년 투르크 당에 의하여 폐위된다. 그 동안 잠재되어 있던 피지배 민족들의 독립에 대한 열망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된 터키 민족주의 운동이 거세지면서 제국 내 모든 민족 간의 평등이라는 이상은 무너지게 되었으며,

39) 1860년에 레반트(Levant)및 북아프리카에 최초로 설립된 '알리앙스'는 급격히 확산되어 1910년까지 발칸반도, 터키, 팔레스타인, 모로코, 이집트, 튀니지 등에 총 116개의 학교가 설립되었다 (Benardete 1982, 150).

터키인만의 평등이 구현되면서 제국은 분열하게 된다. 그 결과 발생한 발칸전쟁과 연이은 1차 세계대전의 결과 그리스, 보스니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등이 분리 독립하게 되었다. 새로운 국가들의 형성은 더 이상 유대인들이 제국의 보호 아래 자치권을 누릴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새롭게 성립된 각국 정부는 이들에게 민족 언어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유대인 학교가 아닌 공립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것을 강제하였다. 또한 신생국가 터키의 케말 파샤는 서구화 정책을 펴면서 아랍문자 표기를 금지시키고 라틴어에 바탕을 둔 새로운 알파벳 체계를 도입하였다. 또한 터키어에서 아랍어와 페르시아 차용어를 제거하려 하였으며 비터키계 소수언어를 철저히 배제하였다. 결국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대 스페인어는 터키, 세르비아, 그리스 등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민족 언어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 된 결과, 급속히 쇠퇴하게 된다.

Ⅴ. 유대 스페인어의 상실

1908년에 발생한 청년 투르크 당의 혁명 이후 오스만 제국 내에 거주하던 많은 세파르디(sefardí)[40]들은 텔아비브(Tel Aviv), 런던, 파리, 북아프리카, 미국 등으로 이주하였다. 이주 하지 않은 채 발칸 반도에 남아 있던 유대인들은 2차 세계 대전 발발 후 나치 독일에 의해 대규모 학살을 당하였으며[41], 생존한 유대인들 중 상당수는 종전 후 새롭게 건국된 이스라엘이나 미국으로 이주하였다.[42] 런던, 파리, 북아프리카 등지로

40) 스페인계 유대인을 의미하는 'sefardí'는 스페인을 지칭하는 히브리어 'Sefarad'에서 유래하였다 (Malinowski 1983).

41) 2차 세계 대전 발발 직전 85만 명에 달하던 발칸 반도 거주 유대인들은 전쟁이 종료된 1945년에는 30만 명으로 그 수가 감소하였다 (Harris 1994, 48).

42) 2차 세계 대전에 참전하지 않은 터키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은 나치 독일에 의한

이주한 세파르디들이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구성하지 못하고 현지 사회와 언어에 급속히 동화된 것에 반하여 이스라엘과 미국으로 이주한 세파르디들은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스라엘 이주 세파르디들의 경우 디아스포라 종식과 이스라엘 민족국가 건설이라는 이념 하에 전 세계에서 이주해 온 유대인들과 융화하며 자신들의 언어와 정체성을 점차 상실하였다[43] (Besso 1970; Harris 1994; Lleal 2005; Malinowski 1983). 반면 미국으로 이주한 세파르디들은 미국에 정착해 있던 기존의 유대인들과 융화하지 못한 채 이들과 갈등을 겪으며 고립되어 졌다. 그 결과 미국으로 이주한 세파르디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세파르디들에 비해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유대 스페인어를 보존할 수 있었다. 이주 초기 이들은 대부분 뉴욕에만 거주하였으나 곧 이어 아틀란타, 신시내티, 시애틀, 로스앤젤레스 등으로 재이주 하였다. 오늘날 미국 내에서 가장 큰 세파르디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는 것은 뉴욕과 로스앤젤레스로써 각각 약 6만 명과 1만 4천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된다 (Elzar 1989).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유대 공동체에 언어 및 관습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동화되지 못한 이들은 경제적 자립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으면서 미국 주류 사회에 진입하는데 실패하였다.[44] 그 결과 이들 대부분이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면서

학살을 모면할 수 있었다. 오늘날 터키에 거주하는 세파르디들은 약 3만 명에 달하나 터키어와의 접촉으로 인하여 급속히 유대 스페인어를 상실하고 있다 (Besso 1970; Lleal 2005).

43) 독일, 폴란드, 러시아 등지에서 이주해 온 유대인은 'asquenazita'라 불리며, 세파르디들과는 히브리어의 발음 및 종교 제례 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오늘날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세파르디들은 약 3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되며, 이들이 구사하는 유대 스페인어는 히브리어의 영향으로 인하여 급속히 상실되고 있다 (Besso 1968; 1970).

44) "the American Jewish majority, of Eastern Europe provenance...had-pressed at first

자신들만의 언어와 관습을 유지하며 삶을 영위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화적, 경제적 고립은 이들이 공동체 내에서 높은 상호연대감을 유지하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은 점차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하며 미국 주류사회로의 진입을 시도하게 된다. 특히 경제적으로 성공한 세파르디들은 자신들의 생활 근거지였던 유대 공동체를 벗어나 앵글로들이 모여 사는 지역으로 이주하며 주류사회의 문화에 점차적으로 동화되어 갔다. 이는 사회경제적으로 성공한 이민자 집단에게서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으로써, 이들의 사회경제적 성공은 자신들의 정체성 상실과 고유한 민족 언어의 상실을 초래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 한다. 즉 경제적으로 성공한 이민자 가족은 주류사회의 일원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며, 이들의 자녀들은 주류사회의 구성원들과 같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며 점차 자신들의 언어와 정체성을 상실하게 된다[45] (이재학 1999). 따라서 사회경제적으로 성공한 세파르디들의 자녀 역시 앵글로들과 함께 고등교육을 받으며 영어와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환경 속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처럼 주류 사회의 언어인 영어와 접촉하게 된 유대 스페인어는 또 한번의 언어적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영어로부터 많은 차용어가 유입되었으며, 영어와의 부호전환이 일상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Mi padre avlo en ingles pero kon a heavy accent”; “Fue en un

---

to recognize the Sephardim with their odd customs, their exotic patronyms, and their strange language, as co-religionists” (Malinowski 1983, 145).

45) 이민자들의 사회경제적 성공이 언어 상실을 야기하는 대표적인 예가 미국 내 히스패닉이며, 일반적으로 이민 3세대가 지나면서 이민 1세대의 언어와 문화적 정체성은 상당수 상실된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재학 1999). 이러한 법칙의 예외는 이민자 집단이 주류사회로부터 지속적으로 사회경제적 차별을 받거나 이민 1세대의 후손들이 주류사회에 동화될 구체적 동기가 결여될 때뿐이며, 이러한 예 중의 하나가 라틴 아메리카 내 한인 이민 공동체이다 (이재학 2006).

bicyclettea la tienda de Mr. Barash;" "Vamos al beach;" "El salio accountant;muy grandeaccountant"[46] 이와 같이 부호전환 현상이 일상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은 영어에 의한 간섭(interferencia)이 매우 심하게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언어 상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실제로 오늘날 미국 내에서 유대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세파르디들은 70세 이상의 고령자들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는 유대 스페인어가 후손들에게 전해지지 않고 상실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Besso 1970;Harris 1994; Malinowski1983).

VI. 맺는 말

가톨릭 양왕에 의한 유대인 추방 이전부터 스페인 전역의 유대인 공동체 내에서 일상어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던 유대 스페인어는 추방 후에도 상실되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러나 추방 후에 사용된 유대 스페인어가 중세 스페인어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언어적 변화 없이 오늘날까지 보존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인종, 다문화 환경에 놓인 비주류 사회의 언어가 언어접촉으로 인한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다. 즉 유대 스페인어는 추방 이전부터 레온어, 까스띠야어, 아라곤어, 까딸란어등과 같은 다양한 로망스 방언 및 아랍어와 히브리어의 영향을 받아 생성되었고, 추방 이후에도 다양한 언어들과의 언어접촉을 통한 혁신을 겪으며 변화해 왔다.

---

46) Harris(1994, 154-193)는 미국 내 유대 스페인어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1978년과 1985년의 두 차례에 걸쳐 각각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세파르디들을 인터뷰하였으며, 본문에서 언급하는 예문은 이를 인용하였음을 밝혀 둔다. 또한 Harris는 조사 대상자의 대부분이 50살 이상자임을 밝히고 있어 젊은 층에서 유대 스페인어가 급속히 상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비주류 사회의 언어인 유대 스페인어가 추방 이후에도 400여년 가까이 생존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오스만 제국이라는 특수한 정치, 사회, 경제적 상황 속에서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언어·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세기 들어와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오스만 제국이라는 보호막이 없어지자 이들은 곧 바로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주류사회의 언어·문화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곧 유대 스페인어의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들이 과거처럼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외부세계와의 접촉을 최소화 할 수 없는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유대 스페인어는 머지않은 미래에 인류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강석영(공저)(1988), 스페인·포르투갈사 , 대한교과서주식회사.

레이몬드 카(공저)(2006), 스페인사 , 김원중 외 옮김. 까치글방.

이재학(1999),「언어의 보존과 상실- 미국 내 스페인어의 현주소」, 서어서문연구, 15, pp.193-214.

_____(2002),스페인어 어원 및 계통론 , 송산 출판사.

_____(2006)「중남미 한인사회에서의 한국어 상실과 보존: 미국 한인사회와의 비교연구」, 라틴아메리카연구, 19(4),pp.161-187.

존 엘리엇(편집)(2000), 스페인 제국사 1469-1716, 김원중 옮김, 까치글방.

_____편집)(2003), 히스패닉 세계: 스페인과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와 문화 , 김원중 외 옮김, 새물결.

카를로스 푸엔테스(1997),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 서성철 옮김, 까치.

Alarcos Llorach, Emilio(1951), "La lengua de los Proverbios morales de don Sem Tob", Revista de Filología Española, Vol.25, pp.249-309.

Alvar, Manuel(2000), El ladino, judeo-español calco, Madrid: Real Academia de la Historia.

_____(2003), El judeo-español I: Estudios sefardíes, Alcalá de Henares: Universidad de Alcalá.

Bernardete, Mair José(1982), Hispanic Culture and Character of the Sephardic Jews, New York: Sepher-Hermon Press.

Bendiner, Elmer(1983), The Rise and Fall of Paradise: When Arabs and Jews Built a Kingdom in Spain, New York: G. P. Putnam's Sons.

Benveniste, Grace(1986), "Five Sephardic Ballads Collected in Los Angeles", La Corónica, 14(2), pp.258-262.

Besso, Henry V.(1963), Situación actual del judeo-español: Presente y futuro de la lengua española, Madrid: Congreso de Instituciones Hispánicas.

_____(1968), "Los sefardíes y el idioma castellano", Revista Hispánica Moderna, Vol.34, pp.176-194.

_____(1970), "Decadencia del judeo-español: perspectivas para el futuro", en Actas del Primer Simposio de Estudios Sefardíes, Madrid: Instituto Arias Montano, pp.249-261.

_____(1971), "Judeo Spanish-its growth and decline", In The Sephardi Heritage, ed. R. D. Barnett, London: Vallentine, Mitchell and Co., pp.604-35.

Elazar, Daniel J.(1989), The Other Jews, the Sephardim Today, New York: Basic Books.

Fontanella de Weinberg, María Beatriz(1976), La lengua española fuera de

España:América,Canarias,Filipinas,judeoespañol,BuenosAires: EditorialPaidós.

Harris, Tracy K.(1994), Death of a Language: The History of Judeo-Spanish, Newark:Universityof DelawarePress.

Lazar, Moshe and Haliczer, Stephen(ed)(1997), The Jews of Spain and the Expulsionof 1492, Lancaster:Labyrinthos.

Lleal, Coloma(2005), "El judeoespañol," en Historiade la lenguaespañola, 2a ed., ed. RafaelCano,BarcelonaEditorialAriel, pp.1139-1167.

Malinowski, Arlene(1983), "Judeo-Spanish Language Maintenance Efforts in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Sociology of Language, pp.137-151.

Mancheva, Dora(2008) "La lengua sefardí ensu decadencia", en Sefarad: Literaturay lengua de una nación dispersa, ed. Elena Romero, Cuenca: Ediciones de la Universidadde Castilla-La Mancha, pp.81-118.

Merrill-Mirsky(1986), "Three Judeo-Spanish Ballads from the Island of Rhodes Collectedin Los Angeles," La Corónica, 14(2), pp.263-267.

Minervini,Laura(2008),"Formaciónde la lenguasefardí", en Sefarad: Literaturay lengua de una nación dispersa, ed. Elena Romero, Cuenca: Ediciones de la Universidad de Castilla-La Mancha, pp.25-49.

Penny, Ralph(2000),Variation and Change in Spanish, Cambridge: CambridgeUniversityPress.

Schmid, Beatrice(2008),"La lengua sefardí ensu plentitud," en Sefarad: Literaturay lengua de una nación dispersa, ed. Elena Romero, Cuenca: Ediciones de la Universidad de Castilla-La Mancha, pp.51-79.

Schwarzwald, Ora R.(1993), "Morphological Aspects in the Development of Judeo-Spanish," Folia Linguistica, 27(1-2), pp.27-44.

Sephiha, Haim-Vidal(1971), "The Real Ladino", The American Sephardi, 5, pp.50-58.

_____(1973), "The Present State of Judeo-Spanish in Turkey," The American Sephardi, 6, pp.22-29.

Wagner, M. L.(1930), Caracteres generales del judeo-español de Oriente, Madrid, Anejo XII de Revista de Filología española.

Zamora Vicente, Alonso(1989), Dialectología española, 2a ed., Madrid: Editorial Gredos.

▌논문투고일자 2008년 11월 3일
▌심사완료일자 2008년 12월 14일
▌게재확정일자 2008년 12월 15일